



제목	이슬람의 관용과 차별에 관한 연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권 1호)
발행일	2007. 2. 28.
저자	황병하
출판도시	부산
페이지수	35-61
ISBN 또는 ISSN	1226-2811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십자군 전쟁 이래로 현재까지 이슬람에 대한 서구 기독교권의 부정적인 비판이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가’라는 논제를 제기하여, 이슬람의 종교적 · 사회적 · 경제적 관용과 불관용 문제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 논문이다. 저자는 이슬람의 관용 여부를 이슬람에 대한 평가와 이해의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인가, 불관용의 종교인가?’, ‘현대 서구 기독교권의 이슬람 비판과 왜곡은 과연 정당한가?’, ‘이슬람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왜곡이 기독교권의 불관용에서 유래한 것은 아닌가?’

저자에 의하면, 이슬람의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논의는 이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관용의 기준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저자는 차별이 아닌 박해의 유무로 이슬람의 관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회도 차별대우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법이나 관행에 따라 이슬람국가와 비무슬림 공동체 사이의 관용과 보호는 ‘담미’라는 계약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이 계약에 의해 보호 받는 사람들을 ‘담미’라고 한다. 담미에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무슬림을 최고로 인정하고 지즈야라는 세금을 내는 대신에 종교와 생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지즈야가 비무슬림을 종교적으로는 관용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차별하는 양면적 도구였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18세기 이후 현대화의 과정에 있는 이슬람세계에서 담미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용을 얻고 있으며 종교에 관계 없이 동등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담미의 이러한 변화가 이슬람의 전통적인 관용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